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열정

아이스콘 포장지 생산 기술 독보

이 중 석 / (주)정경물산 대표이사

견실한 기업임에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기업이 있다. 반면에 전혀 내실이 없음에도 이름만 널리 알려진 기업도 있다. 주변에는 그 허명(虛名)만 쫓아 거래를 하다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정경물산(대표이사 이중석), 포장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생각되지만, 이 회사가 롯데삼강과 대상 등의 대기업에 아이스콘 포장지와 가공식품류의 포장박스를 공급하는 회사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스콘 포장지 공급시장을 보면 롯데알미늄(주), 한국알미늄(주), 삼진화학(주) 등 대기업 혹은 대기업에 못지 않은 중소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콘 시장의 Big4(롯데제과, 롯데삼강, 빙그레, 해태제과)의 아이스콘 포장지는 이들 업체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상황에서 롯데삼강에는 직원 수 30여명에 불과한 (주)정경물산이 아이스콘 포장지를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업체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대학 졸업 후 법공부를 하다 대한필프에 입사했습니다. 2년 근무하다 81년에 정경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류도매업을 시작했고, 85년부터 포장박스의 생산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포장과 인연을 맺

은 계기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법대 출신이라 기계와 인쇄, 포장 분야에는 전혀 문외한(門外漢)이었으니까요.”라며 이 대표이사는 초창기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기술자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물어가며 배웠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고 나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았다고 한다. 그런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아이스콘지 생산 기술이 전무함에도 롯데삼강의 의뢰로 납기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 기계제작에서부터 품질개선작업을 거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것과 무렵제지와 함께 아이스캔디지를 개발할 때 많은 시험생산과 품

질검증을 통해 고품질의 아이스캔디지를 개발했을 때 자부심도 느꼈다고 한다.

“보통 다른 업체들은 시행착오와 기술개선과정에서 포기하고 말지만 신기술개발이 롯데삼강, 무림제지, 정경물산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롯데삼강, 무림제지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몇 번을 강조했다.

이사장은 “지금은 아이스콘 포장지 시장에서 어느 회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며, 현재 생산중인 고급 아이스콘 포장지를 소개했다. 이 콘 포장지는 포장지 위가 종이컵처럼 말려 올라간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정경물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했다. 또한 고휘상도의 포장지를 얻기 위해 옅색인쇄만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고급 아이스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름의 경영철학에 대한 물음에 이 사장은 “지금까지 ‘정경물산’과 거래하면 손해본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과욕으로 인한 무리한 자금회전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납품일자와 대금결제일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것은 제조업 경영자들이 당연히 준수해

야 할 제일 원칙이지 경영철학은 절대 아니라며 웃었다.

정경물산의 기업 수준에서는 과도하게 거래치를 늘리지 않고 기존의 거래선을 잘 유지하고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역할은 충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 경제의 위기는 시작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1공장과 2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정경물산은 현재 1공장은 포장상자, 2공장은 식품포장재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아직은 주력상품이 아이스콘 포장지 생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 때문에 디자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이 사장은 현재는 미미하지만 미국과 일본으로 제품 수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포장업이 적성과는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보니 운영과정에서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얼마 전에는 인쇄기가 고장나 기술자들과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배우는 게 즐거웠다고 한다.

이중석 사장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 개발을 통해 얻은 터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세 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한다는 것이다.

원을 넘은 것 같지 않은 동안(童顏) 가득히 해맑게 웃는 모습에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

박기진 기자